

민선 8기 공약사항, **강화군 범군민 서명운동** 결실!

강화군, 시지정문화재 보존지역 축소안 인천시 의회 통과

시지정 문화재 규제 범위 500 → 300m으로 축소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인천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축소안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지난 5일 인천시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강화군은 이를 인천시에 지속 건의 했으며, 2023년에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10,600여 명의 모두의 염원을 반영한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완화 의견을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화군 내 위치한 인천시 지정문화재 38개소에 대한 문화재 반경이 기존 500m에서 300m로 축소됐다.

이로써 규제 면적이 40.5㎢에서 17㎢로 변경 되었으며, 기존보다 58%나 줄어든 23.5㎢가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간 해당 지역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던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줌으로써 20년 만에 규제 완화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유천호 군수는 “문화재 규제 완화는 주민의 오랜 염원이 실현된 것으로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백하 기자



시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축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대상 리스트 (중구·강화군)

연번	관리번호	명칭	당초	조정	시군	상세주소
1	인천유형0021	총렬사	500m	300m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총렬사로 232 (선원면)
2	인천유형0027	보문사 석실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1
3	인천유형0028	교동향교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남로 229-49 (교동면) 교동향교
4	인천유형0033	후애돈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954
5	인천유형0035	삼암돈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 223-4
6	인천유형0036	분오리돈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 185-1
7	인천유형0038	적석사 사적비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연촌길 181 (내가면)
8	인천유형0041	강화 온수리 성공회사제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5-7
9	인천유형0052	강화 온수리 성공회성당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온수길38번길 14 (길상면) 강화 온수리 성공회성당
10	인천유형0060	강화 고대섭 가옥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674번길 23-4 (송해면)
11	인천기념0015	이규보 묘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까치골길 72-17 (길직리)
12	인천기념0016	강화 내가 오상리 고인돌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 125-1
13	인천기념0018	봉천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려산로463번길 30-6 (하점면)
14	인천기념0022	계룡돈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282번지
15	인천기념0023	교동읍성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7번지
16	인천기념0024	천제암(궁)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64-2번지
17	인천기념0026	허유전 묘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97번지
18	인천기념0027	강화 인산리 석실분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 71
19	인천기념0029	이건창 묘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665-27번지
20	인천기념0030	이건창 생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1114번길 6 (사기리)
21	인천기념0031	강화 대산리 지석묘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1189-1
22	인천기념0032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743-4번지
23	인천기념0037	망양 돈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680번지
24	인천기념0038	건평 돈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산39번지
25	인천기념0039	굴암 돈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98번지
26	인천기념0045	삼거리고인돌군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산120번지 일원
27	인천기념0046	고천리고인돌군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115번지 일원
28	인천기념0047	오상리고인돌군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125번지 일원
29	인천기념0048	교산리고인돌군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108번지 등 총34필지
30	인천기념0056	정제두 묘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남로769번길 52 (양도면)
31	인천기념0064	강화 망산봉수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 131
32	인천기념0065	황형 묘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산 72-1
33	인천문자0008	철종외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철종외가길 46-1 (냉정리)
34	인천문자0009	원층사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산177번지
35	인천문자0010	선수돈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1831번지 외 1필지
36	인천문자0011	망월돈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2107번지
37	인천문자0014	강화 서도 중앙교회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718번지
38	인천문자0018	무태돈대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창후리 산151-2번지
39	인천문자0025	김취려 묘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 71
40	인천문자0016	남북동 조병수가옥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380번길 21 (남북동)
41	인천유형0015	용공사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99-1 (운남동, 용공사)
42	인천기념0009	용공사 느티나무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99-1 (운남동)

이웃 도시 인천 동구에 기부금 전달 유천호 강화군수,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동참



강화군수 고향사랑기부 인증 동참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유천호 강화군수가 동참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이 시작한 기부 릴레이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문경복 용진군수의 지목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웃 도시 인천 동구에 기부금을 전달했고, 기부 인증과 함께 다음 주자로 김찬진 동구청장을 지목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 공제를,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강화군은 강화섬쌀, 순무 김치, 홍삼 제품, 특산 차, 부각, 누룽지, 약썩 제품, 한우, 막걸리, 장아찌, 동물복지 유정란, 고구마빵, 속노랑 고구마, 소창 제품, 잡곡 세트, 요구르트, 화문석 및 소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인증 챌린지에 동참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더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조림 사업, 사방 사업, 산림복원 등 강화군, 24억여 원 투입! 산림사업 조기 추진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육성과 산림의 공익 가치 증대를 위해 산림사업 조기 추진에 2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군은 주요 사업으로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진하고 강화군의 산림 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사업 ▲조림 사업 등을 다른 사업에 비해 좀 더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강화군의 산림사업의 빠른 초기대책 마련과 실행으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산림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재난의 선제 대응을 위해 ▲사방사업 ▲임도 신설 사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종합적인 조기 추진을 통해 군은 산림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군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사업을 통해 산불·산사태 등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을 조기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며, “아름답고 푸른 산림을 유지해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산림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기자



강화군, 23억 8천만 원 투입해 산림사업 조기 추진



강화군, 23억 8천만 원 투입해 산림사업 조기 추진



강화군, 23억 8천만 원 투입해 산림사업 조기 추진



강화군, 23억 8천만 원 투입해 산림사업 조기 추진

강화군, 유정복 인천시장 연두방문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요청



유정복 시장님 연두방문



유정복 시장님 연두방문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2일 강화군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항 청취하고, 군민에게 시정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생생톡톡 애인(愛人)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의 일정은 주요 업무보고, 기자 간담회, 군 의회 방문, 생생톡톡!애인(愛人)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강화군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직면해 있는 현안과 건의 사항을 보고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으로는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강화군 버스노선(3000번) 이관 관련 사항 ▲고속도로 종점부와 국지도 84호선 연결노선 광역시도 지정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강화군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신축 ▲의

포권역 관광명소 조성 지원 등이다.

이어 기자실과 군의회를 방문해 차담회 시간을 갖고, 강화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군민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톡톡 애인(愛人)소통'을 진행했다.

강화아버지 합창단과 지난해 첫 창단한 길상어린이 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장 운영 방향 설명하고, 군민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했다. 또한, 군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기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연두방문을 통해 강화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강화군의 현안사항과 주민



유정복 시장님 연두방문

건의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은 현재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군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화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 최벽하 기자

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인천 강화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하여 위반행위에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곳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강화군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032-934-2172)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화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마무리



강화군의회 292회 마무리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가 지난 1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첫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1차 본회의에서의 집행부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적 결산 검사를 위해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한승희 의원은 “예산편성 못지않게 집행 결과에 대한 결산이 중요하다”며 “군민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내실 있게 검토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실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며 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의 경험과 성취를 토대로 강화군의 특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집행부는 물론 군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의회, 군부대 및 119구조대 위문품 전달



강화군의회 군부대 방문 격려



강화군의회 119구조대 방문 격려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가 지난 31일 교동대교 검문소 및 강화소방서 119구조대를 방문해 군부대 장병과 구조대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위문은 겨울철 추운 날씨 속에서 지역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부대 장병 및 구조대원에게 쌀국수와 라면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려움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교동대교 검문소에는 해병대 제5여단 예하부대 국군장병 46명이 강화군 북단 교동지역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강화소방서 119구조대는 구조대장을 포함한 16명의 대원들이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치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승한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국군장병들과 대원들에게 설 명절을 앞두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며,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무하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강화군의회, 인천시장 연두방문에 따른 차담회 가져



강화군의회 인천시장 차담회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2024년 인천시장의 연두방문 일정 중 군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인천시와 강화군 의회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차담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승한 의장을 비롯한 강화군의회 의원, 윤도영 강화군 부군수 등이 참석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강화군은 넓은 면적과 깊은 역사성,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미래가치가 큰 지역”이라며 “금일 차담회를 통해 인천시와 강화군의회가 희망찬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차담회를 준비한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은 “역사·문화·관광도시 강화군을 방문하신 유정복 인천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강화군의 현안 사항 등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인천시와 강화군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2024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 추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축의 사육밀도를 준수해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장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장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지정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농장 현판 및 지정서가 제공되고, 정부 지원의 축산정책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등 축산 관련 보조사업에서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농장 자가진단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산시스템(www.lemi.or.kr)을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강화군청 축산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등이며,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2월 7일~29일 신청 접수...개선비 최대 60% 범위 내 지원 강화군, 노후 숙박 및 미용 업소 시설 개선 비용 지원



미용업소 사진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숙박·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기준은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운영한 일반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복도·욕실 등의 개선을 위해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5년 이상 운영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내부 리모델링 및 미용 설비 등 개선에 사업비의 60%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노후화된 영업시설의 개선을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영업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문의 ▶ 강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환경위생과 위생팀 ☎ 032-930-3535

5일부터 신청, 설치비 최대 60만 원 지원 강화군, 취약계층 대상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연금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선정자이다.

올해부터는 ▲기본 중위소득 70% 이하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도 추가돼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는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스보일러로, 질소산화물이 87% 감소하며 일반 보일러 대비 효율이 13% 높아 연간 44만 원가량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며 "대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난방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5일부터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량은 총 50세대로, 보일러 한 대당 설치(교체)비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 5일부터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강화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전문가 초청해 '강화섬자두' 영농 컨설팅 진행 강화군, 맞춤형 영농 교육!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강화군 맞춤형 과수 전정교육-자두컨설팅



강화군 맞춤형 과수 전정교육-자두컨설팅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개량물꼬, 이양기 육묘상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사업비 약 17억 원을 투입해 못자리용 인공상토와 개량물꼬는 구입 금액의 80%, 이양기 육묘상자는 구입 금액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의 시기성과

유사성을 감안해 신청받아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인공상토의 경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인천광역시 내에 주소지를 둔 관내 벼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으로, 지원기준은 1ha당 65포(200기준), 32포(400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양기 육묘상자와 개량물꼬의 경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강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이다. 지원기준은 육묘상자 1ha당 300개 기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량물꼬는 1필지당 1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서 접수 후 기본형공익지불제, 농지대장, 농지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검토해 농가별 공급량을 확정하고 3월 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지원 사업이 우량묘를 생산하고 농업 경영비 절감에 일조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원스톱 신청과 같은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화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개최



인천강화경찰서는 금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월7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현판식은 경찰서장과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지원팀장의 진행을 시작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은 수사과장 총괄 하에 기획반과 상황반으로 구성되며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하여 즉응태세를 유지 한다. 더불어, 선거 사범 첩보수집 및 인지 사건을 수사하며 속보와 수사보고를 빠르게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남규희 인천강화경찰서장은 현판식을 마무리하며,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원활한 선거사범 수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강화소방서, 아파트 화재 대비 '불나면 살피서 대피' 캠페인



인천강화소방서(서장 박성석)는 31일 아파트 화재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화풍물시장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출근시간대에 이뤄졌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소방서는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피난경로 · 위험요소 확인 등 화재 상황에 맞는 피난행동요령을 집중 홍보 중이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피난행동요령 안내 및 전단지 배부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홍보 ▲'불나면 살피서 대피' 슬로건 홍보 ▲아파트 관리자 피난행동요령 교육 등이다. 박성석 서장은 “아파트 화재는 대형 재난의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 과제”라며 “화재 예방과 올바른 대피법을 숙지해 인명 · 재산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서정진 기자

하점면 유관 단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성금 기탁



하점면 유관 단체 사랑의 성금 기탁

강화군 하점면(면장 박인상)에 유관 단체들의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서근유) 100만 원 ▲체육진흥위원회(회장 나홍관) 50만 원 ▲농가주부모임(회장 이연임)에서 5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손길을 건넸다. 각 단체장들은 “새해가 되니 주변

이웃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 없는 행복한 하점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인상 하점면장은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이웃들에게 큰 희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선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기부금 1백만 원 전달



선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부금 전달

선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규남, 서광석)가 강화군 복지재단을 방문해 사랑의 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평소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마련한 기금과 위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 기부금을 마련하였다. 강화군 복지재단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규남 위원장은 “강화군 복지재단에 기탁하는 기부금이 취약계층 이웃들의 복지 생활 향상에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화도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이상권 위원장,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백미 기탁



화도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이상권 위원장, 이웃을 위한 백미 기탁

화도면(박수연 면장)은 지난 30일, 화도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이상권 위원장으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백미 4kg 20포(30만 원 상당)를 기탁받았다고 전했다. 이상권 위원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살기 좋은 마을, 이

웃과 정을 나누는 훈훈한 인심이 가득한 화도면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수연 화도면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양도면 주민자치위원회, 설 연휴를 맞아 정성 가득 떡국 나눔



양도면 주민자치위원회 떡국 나눔

강화군 양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달용)에서 지난 26일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떡국 나눔 행사를 펼쳤다. 각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새벽부터 직접 준비한 따뜻한 떡국과 다과를 대접해 더욱 뜻 깊었다. 이달용 위원장은 “정성을 담아 준비

한 음식을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순규 양도면장은 “매서운 한파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도면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취업 장애인 대상 댄스교실 운영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취업 장애인 대상 댄스교실 운영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이 취업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연중 ‘댄스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댄스교실은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경쾌한 음악을 들으며 반복되는 리듬과 율동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취업장애인들이 위해 매주 목요일 퇴근 후 시간인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취업장애인들의 여가 활동 참여 저하로 직장생활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고려해, 이번 댄스교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을 증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져 사회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취업장애인은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니 매우 흥이 난다”며 “일주일 중 댄스교실에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은 “댄스교실 참여자 모두가 건강한 마음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취업장애인들이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취업일선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음식 나눔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한양수)가 지난 1일 읍·면 자원봉사 상담가 등 30여 명과 함께 ‘사랑의 설 명절 음식 나눔 데이’를 진행했다.

설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만든 전 3종 세트(동태전, 동그랑땡, 떡갈비)를 포함해 지역 업체를 활용한 사골곰탕, 도가니탕, 쌀국수, 강화 홍삼 강정, 떡국떡 등으로 식품 꾸러미를 만들었다.

정성껏 완성된 꾸러미는 읍·면사무소와 자원봉사자를 통해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 200여 가구에 전달했다.

한양수 센터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화지역자활센터, 저소득 주민의 자활 일자리 제공 위한 ‘GS25 편의점 사업단’ 개점



강화지역자활센터, 'GS25 편의점 사업단' 개점

강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윤준섭)는 지난 7일,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 일자리 제공을 위해 ‘GS25 편의점 사업단’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 능력은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직업능력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 사업이다.

편의점 사업단은 강화지역자활센터와 GS리테일이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사회공헌형 편의점으로, 사업단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자활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자활기업 전환 시

업 자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준섭 강화지역자활센터장은 “GS리테일과의 협력을 통해 참여자의 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센터장은 뒤이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S25 강화 리치빌점은 선원면 세광엔리치빌 상가동에 위치하며,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운영한다.

기고

이경수

수자기(帥字旗)가 간대요, 글씨



강화역사박물관 전시중인 진품 수자기(2021)

2018년 10월이었어요. 그때 제주도에서 해군 국제 관함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탄 우리 구축함에 수자기를 높이 내걸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방송에서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이웃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수자기를 보고 발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순신 장군을 연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역사를 아는 일본인들에게 어쩔 수 없는 열등감의 대상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배에 수자기가 걸렸던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래서 수자기를 이순신장군기(李舜臣將軍旗)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자기(帥字旗)는 이순신 장군만 썼던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 각 군영에 걸었던 대장기입니다.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선후기에 상당히 많았던 수자기가 어인 일인지, 지금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수자기가 바로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입니다. 귀하다 귀한 수자기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니라 우리 강화역사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재연 장군이 한양에서 광성보로 올 때 수자기를 갖고 온 게 아닐 겁니다. 강화의 군영인 진무영에 있던 것을 광성보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상 강화 진무영의 대장은 진무사입니다. 강화유수가 진무사를 겸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휘관은 진무중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어재연을 진무중군으로 삼아 강화로 급파했습니다. 그래서 어재연이 진무영의 대장기를 걸고 미군과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수자기의 고향이 강화도인 셈입니다. 그동안 강화역사박물관이 관리해 온 것은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3월에 수자기가 미국으로 가야 한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자기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1871년(고종 8) 신미년에 미군이 조선을 침공하니, 이를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하필이면 강화도로 쳐들어왔습니다. 6월 10일(음력 4월 23일)에 초지진을 점령한 미군은 다음날인 6월 11일(음력 4월 24일)에 덕진진과 광성보까지 무너트립니다.

어재연의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침략군에 맞서 싸우다 싸우다, 쓰러졌습니다. 미군은 광성보에 나부끼던 수자기를 끌어내려서 가져갔습니다. 다른 군기 수십 개와 불랑기 등도 쓸어갔습니다.

광성보 전투가 벌어진 그날, 미군이 수자기를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 미군은 염하를 거슬러 오르며 불법적인 '탐측'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미군은 광성보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황색 깃발을 군함 안에서 보았습니다. 글자가 새겨진 것도 알았습니다. 중국인 통역이, '帥'라고 쓴 것인데 대장 깃발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미군은 이때부터 수자기를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깃발치고 정말 큼니다. 가로 415cm, 세로 440cm 정도 크기입니다. 두께도 제법 두툼합니다. 재질은 삼베입니다. '帥'라는 글씨는 별도의 천을 검은색으로 염색해서 안으로 접어 바느질한 것입니다. 바탕 여기저기 보이는 얼룩은 핏자국입니다. 수자기에는 여러 개의 총구멍과 칼로 베어진 자국들도 있습니다.

조선의 병사들이 수자기만은 꼭 지켜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수자기 앞에 서서 달려드는 미군을 막았을 겁니다. 미군은 조선 군사들을 칼로 찌르고 뺏겼죠. 그러는 과정에서 깃발도 베어졌을 겁니다. 조선 병사들의 피가 깃발에 튀어 퍼졌을 겁니다. 지금 수자기가 비교적 멀쩡해 보이는 것은, 미국에서 수자기를 세탁하고 찢어진 부분을 수선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탈취해 간 수자기는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됐습니다. 미

국 해사에는 우리 수자기 등 외에도 다른 나라 깃발 25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동안 외국과 전쟁하면서 빼앗아 간 깃발들입니다.

왜 해군사관학교에 군기를 모아두었을까요?

1849년에 제임스 포크 대통령이 미 해군 장관에게 "전쟁 중 적의 군기, 색상기 등을 몰수할 것을 명령하고 보관·보존·전시"를 위해 미 해군사관학교를 관리하기로 정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결과라고 합니다.

프랑스군이 강화 외규장각에서 훔쳐 간 의궤 반환 협상이 추진되고 있던 2007년, 미국에서, 드디어, 수자기가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양국의 오랜 협상의 결과입니다. 4년 뒤인 2011년에는 프랑스에서 외규장각 의궤도 돌아왔습니다.

의궤는 완전 반환이 아니라 '영구 대여' 형식으로 왔습니다.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이지만, 영원히 반환이 필요 없는 대여입니다. 당시 영구 대여에 반대하는, 완전 반환을 요구하는 여론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자기 사건을 겪고 보니 차라리 '영구 대여'가 잘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에 돌아온 수자기는 '10년 장기 대여' 조건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10년 장기 임대'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 '임대'가 아니라 '대여'라고 써야 적절합니다. 임대(賃貸)는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이라는 뜻이고 대여(貸與)는 그냥 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돈을 주고 수자기를 빌려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임대가 아니라 대여인 것입니다.

처음 대여해 올 때 우리는 완전 반환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 해군사관학교가 거절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1814년에 '미 해군 전리품 깃발 수집'과 관련한 의회법을 제정해서 상대국의 반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849년에는 미국



미군함에 걸린 수자기



수자기 열쇠고리[출처 알라딘]



수자기 점퍼를 입은 정우[출처 MBC]

대통령이 교전국의 군기를 몰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수자기 반환은 불가하다는 것이 미 해군사관학교의 논리였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로 볼 때, 수자기는 미군의 약탈품입니다. 원래 우리 것을 미국이 빼앗아 간 것이니 돌려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수자기를 전리품으로 봅니다. 법률용어로서 전리품(戰利品)은 '전시(戰時)에, 적으로부터 압수, 억류와 동시에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물품'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수자기가 전리품이라 소유권이 미국에 있고 따라서 한국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입니다.

'10년 장기 대여' 조건으로 2007년에 귀환한 우리의 수자기! 2017년이 10년 된 해였습니다. 계약 조건대로라면 그때 수자기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만, 다행히 2년마다 재계약하면서 2024년 2월 현재까지 우리가 수자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화역사박물관은 안전한 보관, 관리를 위해 상설 전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특별 전시만 했습니다. 대신 갑곶돈대 강화전쟁박물관 2층에 진품과 흡사하게 만든 복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납해 줘!”

지난해에 미 해군사관학교가 수자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왜 돌려달라는지 미국 나름의 명분을 댔겠지요. 한겨레신문(2024.01.30.)은 “2025년부터 3년 동안 여는 ‘동아시아 특별전’에 수자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 특별전에는 미군이 전쟁에서 노획한 각국의 깃발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깃발 전시회 할 거니까 돌려달라고 하는데 어찌 안 줄 수 있겠어요. 쥐야지요.

문제는, 전시회가 끝나면, 미 해군사관학교가 다시 우리에게 수자기를 내줄 것인가, 이 점입니다. 그들이 수자기 재대여(再貸興)를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검토해보겠다는 말은 긍정의 신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사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대여해 주었으니, 다시 해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 관련 기관과 강화군이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협상을 준비해서, 몇 년 뒤 수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최선의 결과는 완전 반환입니다. 약탈문화재 반환을 지지하는 국제 여론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2007년에 수자기가 국내로 돌아오는 데 큰 역할을



드라마 <미스터션샤인> 광성보 전투 장면에서 등장한 수자기[출처 tvN]

했던 토마스 듀버네이 영남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법화된 것은 1907년 헤이그협약 이후이다.”(인천일보, 2021.05.17.)

미국의 주장처럼 수자기를 전리품으로 간주한다고 해도, 1907년 헤이그협약 이전에 벌어진 신미양요 때 가져간 것이니, 한국이 수자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하지만, 완전 반환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때로 최선보다 차선이 더 좋기도 합니다. 차선은, 외교장각 의뢰처럼 ‘영구 대여’하는 것이겠지요. ‘영구 대여’를 현실적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뭐, 정 안되면 지금처럼 ‘장기 대여’ 형식으로라도 찾아와야지요.

앞으로 말입니다, 수자기 반환(대여) 요구의 판을 키워서 대대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쪽에 부담을 주지 않게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로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입장일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떻게 대응하든 머리로 대결하는 것보다 저들 가슴을 움직이는 접근법이 더 유효하리라고 저는 여깁니다.

수자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닙니다. 신미양요의 상징입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던 선조들의 피와 눈물이 흠뻑 뻗 문화유산입니다. 비록 떠나가지만, 잊어서는 아니 될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라도 수자기를 더 부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요. ‘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는 후회하고 손을 써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로 쓰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해석해 봅니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다시 잃지 않습니다. 강화인들이 먼저 수자기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남 통영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자기를 일종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수자기가 나부깁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세병관(洗兵館) 마당에는 아주 큰 수자기가 있습니다. 근사합니다. 물론 통영의 수자기는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우리 강화에서도, 강화전쟁박물관 마당이나 광성보에서, 필력은 커다란 수자기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유지가 어렵다면 작은 수자기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강화의 국방유적마다 군기가 펄럭입니다. 전국 어디나 똑같은 ‘청룡기·백호기·주작기·현무기’입니다. 이보다는 수자기가, 우리 강화의 역사적 가치와 개성을 잘 보여줍니다. 강화를 찾는 탐방객들이 수자기를 보면서 수자기 귀환에 관심을 더 두게 될 것입니다.

수자기 들어간 열쇠고리가 있더군요. 인터넷서점에서 어느 책의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에 나오는데요, 모양이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팬시상품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MBC 음악 프로에 정우라는 가수가 출연했는데 그가 입은 점퍼가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가수라는데, 독도와 수자기를 새긴 점퍼를 입은 겁니다. 강화에서 판다면 저도 하나 사고 싶었습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한 소절로 오늘 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화고등학교 23회 졸업생 오필형, 모교에 4년째 장학금을 전달



장학금을 전달하는 오필형



오필형님은 늘 주위 사람들과 나눔의 생활을 하셨던 황해도에서 피난 오신 부모님의 슬하에 3남 1녀중 둘째였는데, 형제 중 오필형님만 유일하게 강화에 살면서 의용소방대, 로타리클럽, 축구협회 심판, 강화읍새마을지도자 등의 활동을 하시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성실함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셨다.

등산이 취미인 그는 산을 오를 때면 내 고장의 산은 내가 깨끗하게 해야 한다며 쓰레기 수거에 앞장서는가 하면, 여름이면 강화읍 오성빌라 어린이 놀이터 주위의 풀을 모두 깎아 주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하여 후배들에게 배움의 길에 보탬이 되어 주었으며, 현재는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중으로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여 모은 돈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필형씨는 "누군가의 작은 힘이 다른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훈훈함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답으로 이어져 이 세상에 절망이라는 단어는 흔적을 감추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서도면, 독거노인에 설 명절 '행복' 꾸러미 전달



'행복' 꾸러미 전달_서도면

강화군 서도면(면장 김용수)이 지난 6일 설 명절을 맞아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10가구를 방문해 명절 음식 꾸러미를 전달했다.

강화군복지재단과 강화군자원봉사 센터의 후원을 받아 음식 꾸러미를 정성껏 마련하고, 섬에서 홀로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이날 음식 꾸러미를 전달받은 한 어

르신은 "자녀와 떨어져 섬에 살고 있는데 늘 가족같이 도움을 주는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수 서도면장은 "오늘 전달된 행복 꾸러미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며 "어려운 이웃들이 새해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강화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기업보조금 지원

2015년 1월 1일 이후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한 기업 대상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관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기업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공장을 강화군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한 기업이다.

지원금은 강화군민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조금(군민 10명 초과 신규 채용 시 6개월간 1명당 30만 원 지원)과 교육훈련 보조금(군민 10명 초과 신

규 채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간 매월 1명당 30만 원 지원) 등이 있다.

신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기업

유치위원회의 지원 대상 타당성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지원 대상 업체라면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천호 군수는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웃사랑 릴레이 성금 기탁 2024년에도 이어져



강화글로벌식문화예술단지 성금 기탁



하점면 이장단 농촌지도자회 성금 기탁



교동면 주민자치위원회 기탁



길상면농지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교동면 새마을남녀지도자회 쌀국수 기부



불은면 새마을부녀회 설맞이 나눔



송해면 나눔 행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양사면 강화로터리클럽 기탁

자연을 담은 강화섬의 맛!

강화군수가 보증합니다!

강화도농특산물



최고의 셰프는 강화입니다!



강화경찰서 심도지구대는 군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화경찰서 남규희 서장은 설연휴를 맞아 치안의 수요 급증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으로써 지역의 치안 강화는 물론, 다각화되는 지능범죄에 대비하여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보이스포싱 등의 예방과 치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 쏠 기능이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빈틈없는 안전을 위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덧붙여, 민생안전확보를 최선으로하여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특히 관내 협력단체와 협조하여 관내 범죄 취약지 및 다중 밀집 지역등을 도보 순찰을 통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 주민에게 안전감을 주기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서정진 기자



보이스피싱 예방



도보순찰



야간 동행순찰



야간 동행순찰



훈·훈·한·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금연! Self 하지 말고 Help 받으세요!

강화군, 3월 말까지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강화군 금연클리닉 운영

또한, 흡연 욕구 저하를 위해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와 행동요법 물품(손 지압기, 악력기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금연 성공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강화군보건소는 금연 상담사가 직장이나 학교, 단체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참여 인원 3명 이상 시 신청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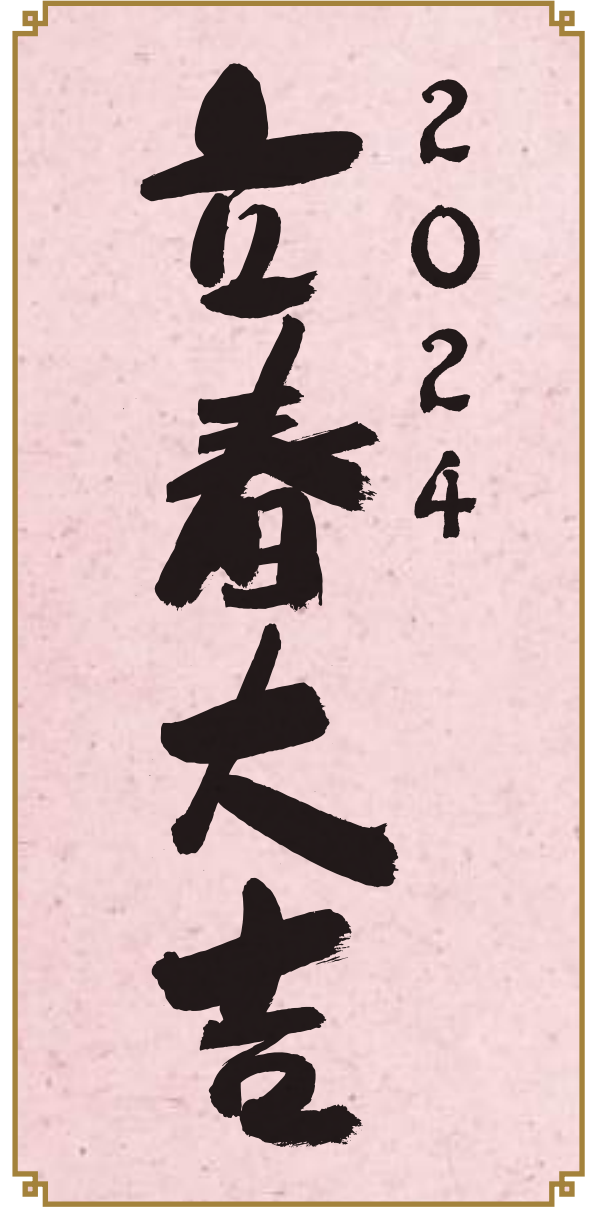
보건소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금연에 성공해 건강하고 새로운 2024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강화군보건소 금연클리닉실
☎ 032-930-4072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야간 금연클리닉을 오는 3월 말까지 운영한다.

야간 금연클리닉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1층 금연클리닉실에서 운영된다.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이라면 금연 상담사를 통해 6개월간 1:1 맞춤 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일산화탄소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 특히 낮 시간대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건강한 강화! 건강체중 만들기

비만영양클리닉운영안내

| 비만영양클리닉 운영안내 |



01 운영기간 및 시간
기간: 연중 상시운영
시간: 09:00 - 18:00 (등록시 17시까지 내소)
등록 후 6개월 집중관리



02 지원대상
지역 주민 중 과체중 및 비만 / 복부비만

| 비만영양클리닉 운영안내 |



03 지원내용
- 신체계측 및 체성분 검사
- 식습관 및 영양평가, 나트륨 검사
- 식사일지 관리 및 개인별 식단제공
- 행동감화용품제공 및 건강증진사업연계



04 등록시 연계가능한 사업
-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연계
- 체력측정사업 연계
- 운동프로그램 연계
- 금연클리닉연계 등

| 건강정보 | 비만도 계산법 |

비만도 계산은 신체질량지수인 BMI(Body Mass Index)에 근거

$$BMI (kg/m^2) = \text{몸무게}(kg) \div (\text{키}(m) \times \text{키}(m))$$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BMI(kg/m ²)	18.5	25	25	30

비만도 계산기에서 산출된 값이 18.5kg/m²미만이면 저체중, 18.5-23kg/m²은 정상, 23-25kg/m²는 과체중, 25-30kg/m²은 비만, 30kg/m²이상은 고도비만입니다.

강화군보건소 비만영양클리닉
(☎)032-930-4071

교동 자연산 추어탕



섬세프의 맛있는 섬에 출연!
교동의 자연산 추어탕의 맛을
선보였습니다.

청정지역 교동도

강화도 자연산 미꾸라지로 끓입니다.



대표 **최 광 춘**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20
(교동 119지연대 & 교동소방대 옆)



☎ 032) 934-8896 010-3732-8615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